

제42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5월1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2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종합의견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됐는데요? 협의가 전혀 안 됐어. 협의된 안이.....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박범계 위원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 청문회 하고 나서 직후에 간사 간 협의한 내용 그대로고요. 거기에 첨삭이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합의라고 그랬어?

○유상범 위원 아니, 분명히 내가 의견을 냈는데 의견 낸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거지 무슨 협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

○위원장 정청래 협의가 됐습니다.

종합의견(안)을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저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상범 위원 부끄럽다, 부끄러워.

○위원장 정청래 일부 위원의 경우 대상자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돋거나 이를 묵인·방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예비비 등 관련 문건을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맡겨 둔 것만으로는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무리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셨고.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안건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고 이러는데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영교 위원 참 무례하네, 무례해.

○곽규택 위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정청래 다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12월 3일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문건을 받고 이를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한 행위, F4 회의를 소집·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행위 등 대상자가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만 읽어요, 그만 읽어. 됐어.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대상자는 경제부총리이자 외환 당국의 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환율이 오르면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이것이 종합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은정 위원님.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여기 결과보고서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권한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위헌·위법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당시에 계엄 문건을 받아서 그것을 차관보에게 직접 전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도 본인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도 미국채를 또 구입을 하는, 매입해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과연 공직자로서 적합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위헌·위법한 최상목 부총리의 그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 소추해서 파면의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8시 30분에 예정에도 없던 법사위가 갑자기 소집된다고 해서 무슨 사유냐 확인을 해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오늘 통과시키겠다, 갑자기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과 이성윤 위원님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진이 나온 언론 보도를 들고 둘이 키득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도대체 법사위의 민주당 법사위원님들 제정신입니까?

○**서영교 위원** 발언 조심해서 해요. 발언 조심해.

○**곽규택 위원** 제정신입니까?

○**서영교 위원** 발언 조심해요. 그런 발언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국민들이 보고 계세요. 제정신이시냐고요.

○**서영교 위원** 제대로 된 발언 해요, 제대로!

○**곽규택 위원**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위원장 정청래** 다른 위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시고 발언을 계속하세요.

○**곽규택 위원** 지금 나라의 위기를 생각한다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오직 또 직무정지 시켜 가지고 내란 몫이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정치권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에 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다 존중하겠다고 사전에 말을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누구 한 분 대법원 판결 나면 존중하겠다 말씀하신 적 있나요? 오늘 판결 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사법 쿠데타 또 윤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정말 이렇게 몰고 가실 겁니까? 그래 놓고 회의장에 모여 가지고 사진 들고 키득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 판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현안질의를 하고 하는 거지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겠다고 회의 소집하는 거 국민들 보시기에 당연히 화풀이, 보복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저는 최상목 대행을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할 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필요성은 어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즉 한국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자부장관, 소위 미국과 투 플러스 투 회담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은 대통령선거 전에 관세 협정을 맺으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매국노다, 한덕수 매국노다, 그리고 최상목·안덕근은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상목 대행이 ‘미 재무장관의 발언은 국내용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 경제를 완전히 미국에다 팔아먹는 경제부총리 그분이 지난 3년간 경제수석을 하면서,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이 나라 경제가 이 꼴 됐습니다. 다 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중차대한데 미국 관세 협정에서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빨

리 해 처먹으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완용 같은 매국노 같은 그러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또 토론하실 분?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합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난 이상 그 판결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정치적 우리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난다고 하는 거 어제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왔을 때 내일 판결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 여기 한 분이나 계십니까? 다 동의했잖아요.

○박은정 위원 그 전에 다 했어요.

○김용민 위원 저 판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박은정 위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유상범 위원 어떻게, 판결 결과가 나왔으면 그래도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글은 ‘한 달 있으면 보자’, ‘사법 쿠데타다’, 대한민국은 정치권이 무슨 깡패입니까? 무슨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무조건 분노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럼니까? 2심에서 무죄 났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칭송을 다 하지 않았어요?

○박지원 위원 좋은 판단이니까 그랬지.

○유상범 위원 좋은 판단이든 나쁜 판단이든 판단이 났으면 그걸로 가야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최상목 탄핵입니까? 갑자기 이제 국가를 멈춰 세우겠다는 건가요?

적당히 하십시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목적, 그리고 대선에서 이길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정말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공청회 했을 때 그때 다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시지요. 그동안 그건 왜 그대로 뒤로 미뤄 놨습니까? 그렇게 내용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도대체 선거와 정치 목적을 위해서 나라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정치가 대한민국을 훑쓸고 있는 이 광풍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지만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중대한 매국노.....

○곽규택 위원 발언 기회 받고 하세요, 발언 기회 받고!

○유상범 위원 아니, 산자부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박지원 위원 경제부총리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대법원 판결 뭐 어떻게 할 거라고 희희낙락하더니만!

○서영교 위원 어디서 반말이야!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은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위원장의 제지를 따라 주세요. 1차 경고합니다.

○송석준 위원 서로 매너를 지켜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오늘 대법원 판결, 세상에 이렇게 앞당기는 판결이 있습니까?

제가 허위 사실로 검찰이 기소해서는 안 되는데 기소당했고 1심 무죄, 2심 무죄 받고 3심 할 때 3월에 무죄 나고 9월에 3심 결과 나왔어요. 제 것 하는 데도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그런데 이게 뭐니까, 며칠 사이에?

제가 오늘 지적해 볼게요. 대법관들, 7만 장 그거 검토 다 했어요? 검토하지 않고 이거 누가 이렇게 빠르게 해서 대선 전에 개입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이거 확 당겨 가지고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 7만 장의 사건기록 봤어요? 사건기록도 안 보고 판결을 해요? 다 짚어 보니까 사건기록도 안 봤어. 사건기록 봤으면 얘기해 봐요! 내일 대법원장 나오라고 하세요.

자, 오늘은 최상목 이야기할게요.

최상목이 문제가 없다고요? 왜 최상목을 그때 탄핵 안 했냐고요? 그래요, 한덕수가 좀 공정한 선거 관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 한덕수 선거판에 나오라고 누가 부채질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채질한 것 아니에요? 자기네 국회의원 후보들 못 믿겠으니 한덕수 나오라고 부채질해 가지고 한덕수 오늘 대법원에서 3시에 판결하니까 4시에 출마한 것 아닙니까. 이거 한덕수랑 대법원장 짜고 친 것 아니에요? 이거 짜고 친 것 아니라고 누가……

한덕수하고 대법원장이 짜고 친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이것 다 찾아봐야 돼요. 한덕수, 대법원장 판단 내리고 나니까 4시에 출마해? 둘이 짜고 침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출마를 해요?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라고 탄핵했어야 됐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최상목도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선거 한다고 나가고 있어, 그런데 최상목을 놔둬요?

최상목, 윤석열 비상계엄 했을 때 돈 마련하라고 문건 받은 사람이에요. 문건 받고 수사 들어가니까 뭐 했어요? 핸드폰 바꿨냐고 물으니까 핸드폰 안 바꿨다고 어디서 거짓 말을 해, 핸드폰 바꿔 놓고. 증거 인멸 아니에요? 마흔혁 임명 거부하고 마용주 거부하고 상설특검 임명 거부하고 이것 권한대행이 할 노릇이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들고 있었던 게. 미국에 가서 관세 협상한다고 나라를 팔아먹어? 매국노 아닙니까? 이 매국노를 이대로 둬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 누가 다 망가뜨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나아졌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누가 책임질 거야? 최상목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최상목 탄핵하는 거 미뤄 줬으면 잘해 왔어야지 잘해 오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들고 했어요. 미국 가 가지고 협상하고 와 가지고 선거운동용으로 해? 이거 봤어요, 이 보도? 보라고!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알려야 돼, 이 보도.

○곽규택 위원 그게 웃으면서 사진 찍을 일이에요?

○서영교 위원 이거 다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왜 이걸 감춰? 매국노를 왜……

○곽규택 위원 밖에 나가서 웃으면서 사진 찍어!

○서영교 위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이게 보니까 너무 격양돼 있고 또 내용도 반복되니까 이쯤에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균형 잡힌 발언 기회는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같은 소리 계속 그냥 들어야 됩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이제 장경태 위원이 토론 종결하기로 했어?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회의 열고 말하는 게 무서운 모양이네, 두려운 모양이야. 회의 계속 해야지!

○유상범 위원 뭘 해, 뭘. 열심히 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정청래 위원장.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장내 소란)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장경태 위원 나라 팔아먹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총리가 도망가고 있고. 국정을 포기하는 총리가 어디 있어!

○곽규택 위원 너희가 국회 의원들이야!

○송석준 위원 대선후보가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반성하세요, 반성.

○주진우 위원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일부 위원 퇴장)

○김용민 위원 국힘은 의원직 총사퇴나 해! 뭐가 아쉬워서 의원직 하고 있어.

○장경태 위원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어디 갔습니까, 국무총리?

○위원장 정청래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경태 위원 말도 못 하면서. 한마디도 못 하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나라 걱정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나라 걱정을 했다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키지 말았어야지요. 또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걱정하고 계신데 선거를 걱정하려면 국정을 운영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걱정하는 국민의힘이 제정신입니까?

최상목은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산 지 6개월 만에 먹통 났다는 국익 침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입니다. 삼성 핸드폰 폭망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책임지시겠습니까?

또 미국 재무부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일갈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일찍 끝내 가지고 협상의 틀을 빨리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이것은 매국노가 할 짓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인내하면서 내란 세력이 그래도 국정을 공백 없이 잘 운영해 주길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한덕수나 최상목 등 내란 세력들은 국가는 안 중에도 없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마저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를 서슴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목은 저희가 탄핵조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 주셨듯이 저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범계 박은정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이은정